

#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합의...국회 수정권한 포기 여부는 논란



8일 오후 호남대 공자학원에 문을 연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에서 서강석(맨 왼쪽) 호남대 총장 등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본격화

### 지역구 희생 없는 비례대표 도입 등 특위내 소위 구성해 계속 논의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기로 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포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지 않은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이같이 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시작 전 야당 간사 간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해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대상이 됐던 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선거구 획정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큰 합의"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간사와 함께 8월31일 활동 기한 내에 모든 개혁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적 의견에 뜻을 모았다"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

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야당 간사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선거구획정위 결정의 국회 수정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과잉 보도됐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또 선거구획정위를 어떤 방식으로 독립화하는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다. 여당 측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 설치 방안을 선호하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에 두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이날 권역별비례대표 도입과 관련, ▲인구등가성분 아니라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을 보장하는 장치 필요 ▲지역구의 희생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당의 설립 완화 등의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소위를 구성, 구체적 논의를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내에 소위는 공직선거법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소위로 구성되며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소위에서 논의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하기로 했으며 29일에는 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구성 방법과 수정 권한 문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 30일 본회의에 최종안을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시 '차이나프렌들리 지원센터' 문 열어

### 호남대 공자학원에...직원 상주 중국인 관광·생활민원 해소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애로사항과 생활민원 등을 처리해주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8일 오후 호남대 공자학원에서 운장현 광주시장, 서강석 호남대 총장, 황선민 중국 총영사, 중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문을 연 지원센터는 지난 1월30일 시와 호남대가 체결한 '차이나프렌들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호남대 공자학원 내에 설치됐으며, 전문인력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중국 유학생, 중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족 등 중국인들이 광주에 체류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관광·교통·숙박 등에 대한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사안에 따라 분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민원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특히, 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자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 총영사관 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각종 교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상호 교류하게 된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개소식에서 "중국에 대해서 단순히 관광객 몇 명을 더 모을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가 르네상스를 이뤘듯이, 중국의 발전과 함께 찾아 올 '신항해권시대'를 맞아 광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찾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중국과 친해지기'를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전중국 문화관광콘텐츠 활용한 대중국 한류관광 기반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중국 홍보·프로모션 전개 ▲정유성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명승화 등 도시마케팅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대중국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 ▲문화전당 내 관광객 유치 거점 공간화 ▲광주·전남 공동 차이나관광벨트 구축 등 187기 세부 사업을 정해 추진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모험의 시작

# 가족뮤지컬 보물섬

**예술감독 | 김창일**  
**프로듀서 | 이영민**  
**작가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연출 | 이철승**

**R. 30,000원 / S. 20,000원 / A. 10,000원**

### 2015년 5월 4일 (월) ~ 8일 (금) | 빛고을 시민문화관

4일, 6일, 7일, 8일 PM 6시30분    5일 AM 11시, PM 2시,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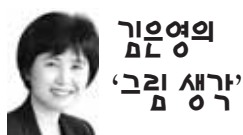
주최·주관 | **광주일보**

후원 |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협찬 | **스타벅스** **신세계** **신한은행** **상무점** **해남은어방** **이서점** **도서출판 아랑**

예매 | **인터파크 티켓링크** 문의 | **062-523-0333**

## 아치형 철교위 기차, 화폭 밖으로 튀어나올 듯



(110) 속도



윌리엄 터너 작 '비·증기·속도'

지난 주말 서울 다녀오느라 KTX를 탔다. 마침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서울에서 서울은 이미 심리적으로 가까워져 있었다. 여는 때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객이 늘어서인지 주차난에 송정역과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골목에 가까스로 차를 세웠다.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초인적으로 뛰었다가 거의 심장이 터져버릴 뻔 했다. 1시간 여 빨라진 고속철도의 속도를 온 몸으로 먼저 체험하면서 기쁜 숨을 몰아쉬었다.

빠른 기차 속에서 '속도'를 그린 화가가 떠올랐다. 영국의 국민화가 윌리엄 터너(1775~1851)는 작품 '비·증기·속도(대서부철도)'(1844년 작)를 통해 폭우와 안개 속을 뚫고 맹렬한 속도로 탭스강 맞은편 철교위를 질주하는 기차를 그렸다. 배경이나 풍경을 무시하고 기차와 아치형 철교의 기본 형태만 남겨놓은 화면에서 돌진하는 기차는 대각선을 따라 화폭 밖의 우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올 기세다.

당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영국은 증기하는 원료와 제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증기 기차와 증기선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속도는 많은 이들에게 경이로움을 주었을 것이다. 화

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하다. 실제 터너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비가 오는 날 런던에서 항구도시 엑스터로 가는 대서부 철도 기차를 탔다. 비를 뿌리는 대기와 자연의 풍경, 기차의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던 터너는 차량 바깥으로 몸을 내밀고 오랜 시간 관찰했다고 한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미스터 터너'에서 작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폭풍우가 치는 배에 매달아 태풍의 모습을 묘사하려 했던 터너의 열정이 겹쳐진다.

영국은 물론 유럽 대륙 등 많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받아왔던 터너에게 자연은 인간의 감정이 반영된 동적인 세계였다. 터너는 자연의 빛과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작품에 탁월하게 담아냈고, 그로 인해 낭만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인상주의 미술의 도화선이 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